

## 시민단체·대학교수·총학간부들까지 바글바글 선거판 너무 일찍 달궈진다

### “본분 망각 학연·지연따라 이합집산” 비난 여론도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밑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지방선거 입지자 진영에 합류하고, 일부 교수들도 선거 캠프 외곽조직 참여 움직임을 보여 ‘과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일부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도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 진영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하는 등 선거 바람에 휩쓸리고 있어 보다 성숙한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대면 알만할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광역단체장 입지자 진영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광주지역 시민사회진영 활동가로 잘 알려진 A씨 등 일부 인사들은 최근 광역단체장 입지자 진영에 합류, 조직과 기획 부문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광역단체장 입지자 진영에 합류하면서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기존 조직과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영입에 나서는 것은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서 개혁적 이미지 확보와 조직적 지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선거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정치적 철학과 노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선거에 개입, 개인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중견 인사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방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단체의 자원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점에서 일부 인사들이 지방선거 입지자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대학 교수들도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외곽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모 광역단체장 입지자 진영에서는 조만간 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규모 정책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며, 일부 기초단체장 입지자들도 포럼 등의 형태로 교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성취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목적보다는 개인적 친분이나 부득을 받고 유력 입지자들의 외곽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정책 전문가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입지자들의 목적과 지방 정부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폴리페서의 이해 관계

가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도 지방선거 바람에 휩쓸리고 있어 순수성이 훼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 진영에서는 청년 조직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현직 총학생회 간부들도 지방선거 입

지자 진영의 청년 조직 등을 맡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는 점에서 벌써부터 과열 양상인 것 같다”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수 사회 및 총학생회 등에서는 보다 냉철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조선대 21년만에 정이사 체제

### 사분위 8명 확정...구성 분포따라 갈등 우려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조선대학교 정이사 9명 가운데 8명을 확정, 정이사 선임에 공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지난 1988년 2월 문교부가 박철웅 전 총장과 이사 9명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지 21년10개월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마치고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조선대, 국회 교과위 김영진 의

원 등에 따르면 사분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제47차 전체회의를 갖고, 조선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해 정이사 7명과 예비이사 1명을 선임했다. 나머지 1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선임해 정이사 선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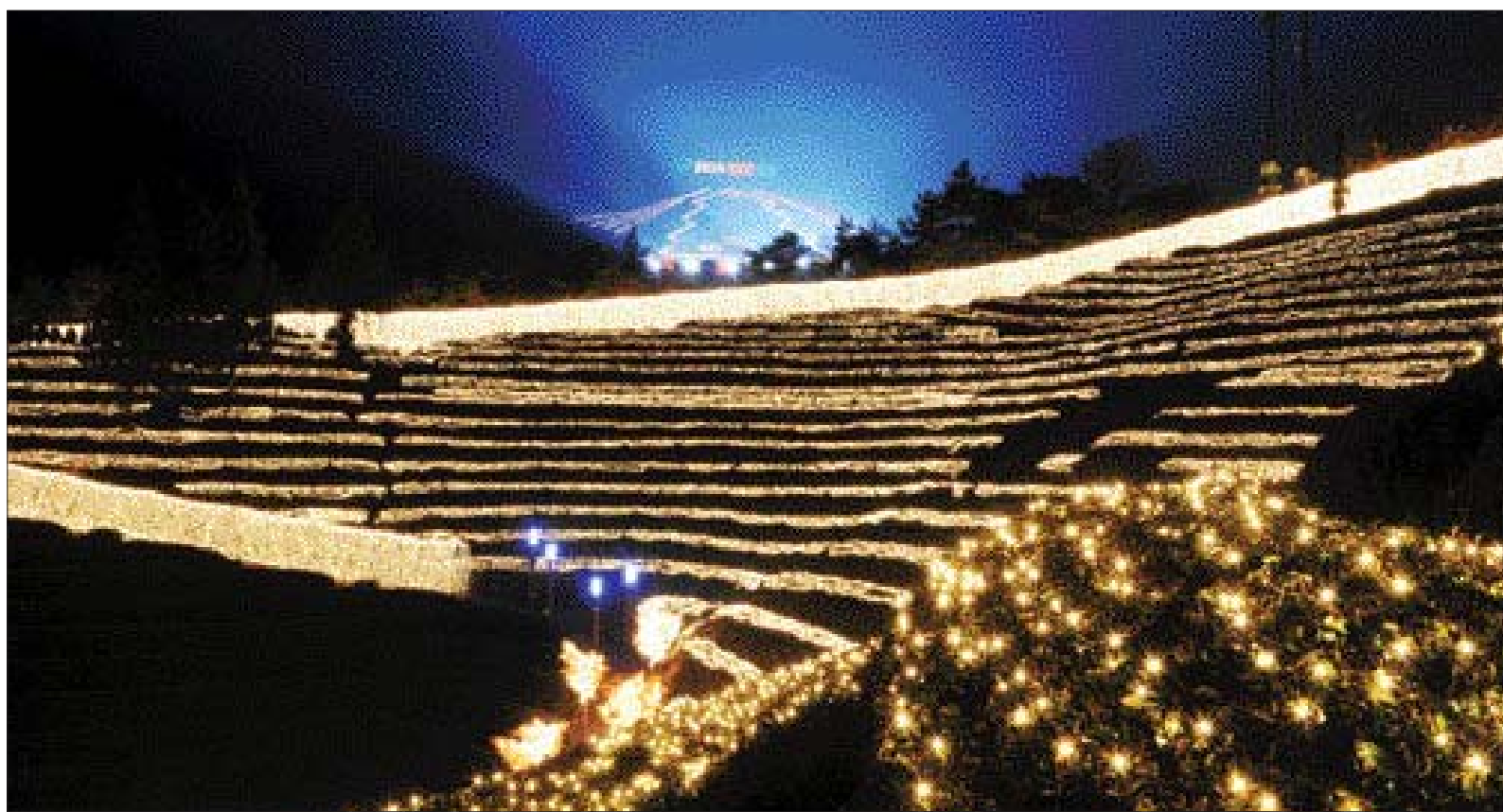
이날 사분위는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서 조선대 법인 측과 교육과학기술부, 종전이사 등이 추천한 정이사 후

보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인 9명의 과반수 이상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정이사 선임이 의결됐으나 위원들의 면면이 확인되지 않아 조선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조선대는 올해 초 임시이사 파견시 비리로 물러난 옛 경영진과 관련된 인사들이 학교로 재진입할 경우 정상화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에 선임된 정이사들이 옛 경영진과 연관됐는 지 여부에 따라 이번 정이사 선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분위가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조선대와 광주지역민들의 21년 응어리진 숙원이 해결됐다”면서 “이제 조선대는 1946년 지역민들에 의해 설립된 민립대학으로서의 숭고한 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민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



### 불밝힌 보성차밭 트리

‘보성차밭 빛 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밤 보성군 회천면 북재다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트리가 불을 밝혔다. 트리는 높이 120m, 폭 160m에 150만여개의 은하수 전구와 LED 조명으로 꾸며졌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겨울밤을 수놓게 된다.

/보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 홍라영 삼성미술관총괄부관장

### 위상 높아진 광주비엔날레

## 미술계 거물들 새 이사진으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 이사회가 ‘미술계 파워인사’로 업그레이드 됐다.

재단은 10일 오전 제113차 이사회를 열고,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신입 이사 9명을 선출했다.

신입 이사들은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 ▲홍라영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 ▲윤광호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 ▲이정봉 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 ▲임재형 광주전남디자인협회장 ▲우재길 우재길미술관장 ▲송숙남 광주대 교수 ▲임선숙 변호사 등이

다. 특히 이들 신입 이사들 중 배순훈 관장, 표미선 회장, 홍라영 총괄부관장 등 미술계 거물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이들은 국내 미술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

로, 광주비엔날레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배 관장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대우전자 사장과 회장, 한국과학기술인 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국내 미술의 상징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이다.

또 표화랑 대표인 표 회장은 국내 상업갤러리들의 모임인 화랑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지휘하고 있는 미술계 마당발이다. 이진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영씨의 동생이기도 한 홍라영 총괄부관장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한 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사립미술관의 대표 인물이다.

이날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이 가능하며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심의 등 재단의 주요 안건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tyocall.com  
깊이 있는 지성의 나침반  
조선대학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 “한국경제 내년 5% 성장”

### 정부 확장정책 계속...올해는 0.2% 전망

올해 우리 경제가 0.2%의 근소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5%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정부가 10일 공식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약간 높은 3% 내외,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취업자는 20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경제5단체, 여당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올해 및 내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는 올해 -1.1% 성장률로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교역량 회복 등으로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상수지에서 상품수지는 내년에 수출이 13.2%, 수입은 21.1%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올해의 550억 달러에 비해 줄어든 350억 달러가 되고 상품외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확대로 내년 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고용여건이 올해보다 개선되지만 실물경기에 비해 회복속도가 느리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수도 줄어 20만명 증가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맞춰 내년에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외고 규모 줄이거나 국제고 등 전환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국어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만화 영어신문’ 오늘 배달